병자호란 호종일기

남한일기(南漢日記)

석지형(石之珩) 저
석승징 편역

충주·홍주석씨 대동종친회

편역자 서문

이 글은 우리 충주·홍주석씨 참판공파 17세손이신 석지형(1610~) 선조께서 쓰신《남한일기》의 내용을 요약해서, 번역하고 정리한 글이다.

《남한일기》는 병자년인 1636년 12월 14일부터 정축년인 1637년 1월 30일까지의 기록이다. 인조가 남한산성에 들어간 날로부터 도성으로 환궁한 날까지의 사건과 사고들을 일자별로 기록하고 있다. 그 문체와 내용이《조선왕조실록》과 매우 유사하다. 석지형은 승지들이 사초를 쓰는 방식과 같이 매일 매일의 사실들을 객관적으로 써내려간 것으로 이해된다. 예컨대 정축년 정월 29일의 기사에서는 주상께서 대신들과 비밀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이야기까지 그대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들로 인하여 오히려《남한일기》를 석지형의 저작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한편,《남한해위록》은 석지형 스스로 밝혔듯이 병자호란이 끝난 후인 1638년에 스스로 편집하고, 서문과 발문을 지어 세상에 내 놓았다. 석지형은 서문과 발문에서 자신이 인조를 호종하여 남한산성으로 들어간 이후 직접 목격한 사실들을 기록하여 후세에 전하고자《남한해위록》을 편찬했다고 밝히고 있다.《남한해위록》에는 병자호란의 발생 배경에 대한 내용과 인조가 도성으로 환궁한 이후의 사건들까지 기록되어 있다. 석지형에게 있어서《남한일기》는 사초이고,《남한해위록》은 실록이었던 것 같다.

글을 정리하면서, 무기력했던 병자호란 당시의 우리 선조들의 모습을 발견하는 과정은 받아들이기 힘든 고통이었다. 대륙의 정세에 대한 무지, 벌어지는 현실에 대하여 오락가락하는 개념 없는 왕과 신하, 명분을 내세운 무의미한 주장,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는 무책임 …… 이런 모습들 속에서 오늘날의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는 지도층의 모습이 교차되는 환영을 본다.

2022. 12. 7

편역자: 석승징 (병사공파 29세손)

일러두기

1. 이 글은 석지형의 《남한일기(南漢日記)》를 저본으로 하고, 《남한해위록(南漢解圍錄)》의 내용 일부를 추가하여, 요약한 후, 번역하고 정리한 글이다.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을 참조하였다.
2. 《남한일기》는 병자년(1636년) 섣달 14일부터 이듬해인 정축년(1637년) 정월 30일까지의 기록이다. 프롤로그를 비롯하여 여타의 기록들은 《남한해위록》에서 가져온 것이다.
3. 《남한일기》·《남한해위록》 모두 일자별로 발생한 사건과 사고를 기록한 형태이므로, 같은 날짜의 기록이라 해도 위와 아래 문단의 연결 고리가 없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병자년 섣달 17일의 기록은 '주상께서는 남한산성에 계셨다.'는 사실, '주상께서 성을 순시하며, 장대에 올랐다.'는 사실, 그리고 '조정의 회의에서 성 안의 곡식은 몇 개월 치 뿐이고, 병장기도 부족하므로, 왕자를 보내어 싸움을 피하는 것이 낫겠다는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들이 건조하게 나열되어 있다.
4. 《남한일기》·《남한해위록》·《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특정 사건의 발생 일자가 상이한 경우가 있다. 이 글에서는 특정 사건에 대한 기사를 《남한일기》를 중심으로 배치하였다. 다만, 전체적인 사건의 흐름을 고려하여 조정한 경우가 있다.
5. 《남한해위록》에는 석지형 본인의 감회를 밝힌 글이 군데군데 보인다. 대체로 "아아!"하는 감탄사에 이어지는 글이다. 이 글에서는 섣달 29일의 기사와 정월 27일, 30일의 기사 속에 보인다. 다른 글과 구별하기 위하여 한 줄을 비우고 배치하였다.
6. 번역은 이훈종이 번역하여 광주문화원에서 발행한 《남한일기》(광주문화원, 1992)와 이영삼의 석사학위 논문 〈역주 《남한해위록》〉(전남대학교, 2013), 그리고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조선왕조실록》(국사편찬위원회, https://sillok.history.go.kr)을 참고하여 문맥을 수정하였다.
7. 날짜는 모두 음력이다. 예를 들어 음력인 인조 14년 12월 6일이 양력으로는 1637년 1월 1일이다. 따라서 실제 병자호란이 일어난 날짜는 양력으로 1637년 1월 4일이다.

참고자료

석지형, 《南漢日記》,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자료실 소장.
석지형, 《南漢解圍錄》,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자료실 소장.

석지형 저, 이훈종 역, 《남한일기》, 광주문화원, 1992.

김훈 장편소설, 《남한산성》, 학고재, 2007.

《朝鮮王朝實錄》, 국사편찬위원회국사편찬위원회, https://sillok.history.go.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encykorea.aks.ac.kr.

석지형(石之珩, 1610~?)은 누구인가?

충주 석씨 참판공파 17세손이다.

자는 숙진(叔珍), 호는 수현(壽峴)이며 석경하(石擎廈)의 아들이다. 1633년(인조 11) 생원시에 합격하고 이듬해에 별시문과에 급제하였으며, 공조좌랑·형조좌랑·형조정랑·숭정원승지·횡성현감(縣監)·강화부교수(江華府敎授)·개성부교수(開城府敎授) 등을 역임하였다. 그는 강화부교수로 재직하면서 1653년(효종 4) 시사(時)를 논하는 글을 상소하고, 《주역(周易)》을 추연(推演)한 《오위귀감(五位龜鑑)》을 왕에게 바쳐 호피(虎皮) 등을 하사받았다. 《오위귀감》을 올린 동기는 군덕(君德)을 권장하기 위함이었으며, 그 내용은 《주역》 64괘 가운데 오위(五位)에 관한 효사(爻)를 뽑고 자신의 의견을 붙여 군왕의 처신을 그 효사에 맞추어 해달라는 것이었다. 미수(眉叟) 허목(許穆, 1595~1682)은 석지형의 문집인 《수현집》의 서문에서 이 글을 높이 평가하였다.

저서로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외부와 연락이 끊긴 채 소수의 군사로 버티다가 결국 임금이 직접 나가 항복했던 비극을 그대로 쓴 《남한일기(南漢日記)》와 《남한해위록(南漢解圍錄)》, 그리고 문집인 《수현집(壽峴集)》 등이 있다.

계통도 보기

(그림 1) 출처: 충주·홍주석씨 대동종친회 홈페이지(http://www.seokfamilymt.com)

《남한일기》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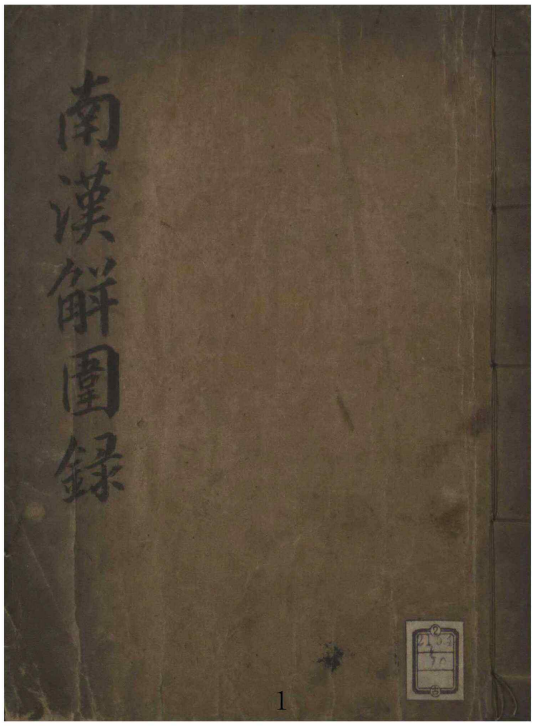
《남한일기》는 1636년 청나라가 조선을 침략하여 남한산성에 위협을 가하던 시기로부터 시작하여 45일 간의 방어사실과 피침상황(被侵狀況) 등을 서술하였다. 《남한일기》는 알려져 있지 않다가 1753년(영조 29)에 당시 광주부유수(廣州府留守)인 이기진(李箕鎭, 1687~1755)이 발견하여 사료적 가치가 있음을 인정한 후, 등사하여 배포함으로써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남한일기》는 병자호란 때 저자 자신이 직접 남한산성에 들어가 전란방어책과 용전, 격퇴상황 등을 면밀히 기록한 글이다. 또한 청나라가 조선에 침입하였을 때의 청군의 군비상황과 부대배치, 적장의 인적사항 등을 담고 있어 병자호란의 전모를 이해하는 데 귀한 자료가 된다.

(그림 2)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남한해위록》은?

《남한해위록》은 석지형이 27세 때에 공조좌랑(工曹佐郎)으로 어가(御駕)를 호종하여 남한산성에 들어가서 겪은 내용을 기록한 책이다. 이 책은 병자호란(丙子胡亂, 1636년)의 배경과, 1636년 12월 9일 청이 조선의 국경을 넘은 날부터 이듬해 인조(仁祖, 1595~1649)가 항복한 후 소현세자 등이 청에 압송될 때까지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석지형은 난이 끝난 이듬해인 1638년(28세, 判官)에 서문과 발문을 지어서 세상에 알렸다. 석지형은 자신이 직접 쓴 서문과 발문에서 인조를 호종하여 남한산성에 들어간 이후 자신이 목격한 사실들을 후세에 전하려는 목적으로 이 책을 편찬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 자료: 이영삼, 〈역주 《남한해위록》〉,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3쪽의 내용을 발췌하여 일부 문맥을 수정하였다.



(그림 3)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https://www.nl.go.kr/)

행력

왕력		서기	간지	연호		연령	기사
광해군	2	1610	경술	萬曆	38	1	태어나다.
광해군	4	1612	임자	萬曆	40	3	11월, 모친 邊氏의 상을 당하다.
인조	11	1633	계유	崇禎	6	24	진사시에 합격하다.
인조	12	1634	갑술	崇禎	7	25	별시문과 을과에 급제하다. ○ 2월, 務功郞行奉常寺參奉 兼 校書館正字에 제수되다.
인조	14	1636	병자	崇禎	9	27	인조를 扈從하여 남한산성에 들어가다.
인조	18	1640	경진	崇禎	13	31	12월, 부친상을 당하다.
인조	19	1641	신사	崇禎	14	32	3월, 모친 全氏의 상을 당하다. ○ 7월, 공조 좌랑 재임 중 무릎의 종기로 인해 改差되다.
인조	20	1642	임오	崇禎	15	33	2월, 扈從錄에 이름이 오르다.
효종	4	1653	계사	順治	10	44	5월, 江華 敎授로 상소하여 時事를 논하고 〈五位龜鑑〉을 진헌하여 임금의 칭찬을 듣고 虎皮를 하사받다.
효종	7	1656	병신	順治	13	47	8월, 楊州 敎授가 되다.
효종	9	1658	무술	順治	15	49	10월, 災變으로 인해 임금의 修省을 촉구하는 상소를 올리다.
현종	1	1660	경자	順治	17	51	11월, 開城 敎授가 되다.
현종	-	~	~	~	-	~	횡성 현감으로 재직 중 김해에 유배되었다가 곧 풀려나다.
현종	9	1668	무신	康熙	7	59	6월, 奉常 判官이 되다. ○ 7월, 기우제 典祀官의 공로로 兒馬 1필을 하사받다.
숙종	2	1676	병진	康熙	15	67	5월, 江華 敎授로 부임하여 술을 좋아하고 還上分給을 아들에게 대신 시켰다 하여 파직되다.
숙종	3	1677	정사	康熙	16	68	7월, 校理가 되다.
숙종	4	1678	무오	康熙	17	69	8월, 平壤 敎授가 되다.
숙종	35	1709	기축	康熙	48	-	아들 石奎瑞가 목판으로 문집을 간행하다.
순조	27	1827	정해	道光	7	-	중간본이 활자로 인행되다.

* 자료: 한국고전종합DB (https://db.itkc.or.kr/dir/item?grpId=hj#/dir/node?grpId=hj&itemId=MI&dataId=ITKC_MI_0865A)

프롤로그

여진족이 세웠던 금나라는 1234년 몽골에 의해 멸망한다. 금나라가 망한 후, 여진족은 부족 단위로 뿔뿔이 흩어져 살다가 16세기 후반, 명나라가 약해진 틈을 타서 세력을 키웠으며, 이 때부터 만주족이라 부르기 시작한다. 만주족의 우두머리였던 누르하치는 부족들을 통합하여 후금을 세운다. 누르하치의 뒤를 이은 홍타이지는 1936년 나라 이름을 청으로 바꾸고, 농민 반란으로 명나라가 멸망한 틈을 타서 중국 전체를 지배하기에 이른다. 홍타이지는 내몽골을 평정한 후, 조선을 침략해 호란을 일으킨다.

(그림 4) 병자호란과 정묘호란(출처: 두산백과, http://www.doopedia.co.kr)

조짐. 그리고.....

인조 5년(1627년), 후금은 우리 조선의 평안도와 황해도 지역을 침범하였다. 왕은 강도(강화도)로 피난하였는데, 조선은 너무나도 무력하였다. 결국 우리 조선은 후금과 형제의 연을 맺었다. 후금은 형의 나라가 되고, 조선은 아우의 나라가 되었다. 화친한 이후 해마다 우리 조선은 후금에 공물을 바쳤다. 1627년은 정묘년이다. 바로 정묘호란이다.

인조 13년(1635년) 겨울에 왕비인 인열왕후가 승하하셨다. 후금에서는 용골대 등을 보내어 조문하였다. 용골대 등은 인조 14년(1636년) 2월에 우리 조선에 들어왔다. 이 때, 그는 후금의 왕이 황제가 될 것임을 알리는 국서를 가지고 왔다. 명나라를 큰 나라로 보고 사대 정책을 펴던 조선으로서는 후금의 왕이 황제가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장령[1] 홍익한 등이 용골대의 목을 베어 효수하자고 주장하였으나, 주상께서는 허락하지 않았다. 다만 국서를 보지 않으셨다.

그런데 조선인 가운데 이런 사실을 용골대 등에게 알리는 이가 있었다. 용골대 등은 분노하였으나, 죽을 것을 걱정하여 달아났다. 사신이 분노하여 달아났으므로 틀림없이 사단이 일어날 것을 걱정하신 주상께서는 오랑캐를 대비하라 명하셨다.

인조 14년(1636년) 4월, 후금이 국호를 대청으로 바꾸고 연호를 숭덕이라 하였다.

마침 조선의 무신 나덕헌과 이확이 청나라에 사신으로 가 있었다. 이들은 황제 즉위를 축하하는 대열에 참여하지 않았다. 청나라 사람들은 그들을 강제로 축하 대열에 참여 시킨 후, 국서를 주어 조선으로 돌려보냈다. 대간들과 여러 대신들은 그들이 명분을 위해 스스로 자결하지 않고, 국서마저 버리고 왔다고 목을 벨 것을 청하였다. 조정에서의 논의 끝에 그들을 죽이지는 않았다.

12월, 박노를 청나라에 보내 상황을 관찰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박노가 국경에 도착하기도 전에, 청나라의 군대는 이미 국경을 넘어 우리 조선을 침범하고 있었다. 저들은 바람에 타는 불길처럼, 이틀 길을 하루에 걸어, 그야말로 나는 듯이 쳐들어 왔다. 인조 14년 12월 9일의 일이었다. 1636년이 병자년이므로 우리는 이 일을 병자호란이라 부른다.

몽진. 강화로? 산성으로?

인조 14년 병자년 섣달 11일. 저물녘에 청나라 군사들이 평안북도 안주에 도착했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소식을 들은 도성 사람들은 놀랍고 두려워 떨었다. 성 밖으로 도망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서로 부딪히고 짓밟히기면서도 알지 못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청나라 군사가 평양에 도달했다는 보고가 이어서 들어왔다.

14일. 새벽에 청나라 군사가 황해도 중화에 이르렀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우리 조선의 군사들은 너무도 무기력하게 청나라 군사들에게 길을 열어주고 있었다.

사태가 급박해지자, 조정에서는 강도[2]로 피난하기로 결정하였다. 우선 종묘와 사직의 위패와 소현세자빈 강씨, 봉림대군과 인평대군 및 두 부인이 먼저 강도로 들어갔다.

---

1) 장령은 조선시대 사헌부의 정4품 관직이다.
2) 강도는 강화도이다.

이어 오후에 주상께서 강도로 가고자 남대문에 이르렀을 때, 청나라 군사가 벌써 서대문 서북쪽의 사현[3]을 넘었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대신들은 서로 얼굴만 바라볼 뿐이었다. 이윽고 체찰사[4] 김류가 남한산성으로 가자고 건의하였다. 급한 대로 판서 최명길과 참판 이경직을 적에게 보내어 화친을 논의하며 시간을 끌게 하고, 주상께서 타신 수레는 서둘러 방향을 바꾸었다.

호위하는 군사들, 피난하는 사람들과 뒤섞여 수구문[5]에 이르니, 문은 좁고 나가려는 사람은 많았다. 헤어져 울부짖는 소리가 하늘에 가득하였고, 노약자들은 쓰러져 죽었다. 죽은 이들의 시체가 쌓이고 있었다. 주상을 태운 수레가, 죽은 이들의 시신을 내보내는 수구문을 통해서 도성을 떠났다.

황혼 무렵, 어가는 신천 나루와 송파 나루를 건넜다. 나루는 얼어있었다. 어두컴컴해서 어가는 겨우 남한산의 산기슭에 이르렀으나, 신하들은 모두 뒤에 처져 있었다. 수레를 따르는 이는 겨우 5, 6명뿐이었다. 주상의 수레가 남한산성의 남문에 이르렀을 때, 노루가 길을 가로질렀다. 환관 하나가 말했다. "좋은 징조입니다. 오래지 않아 환도할 것입니다." 주상께서 물었다. "어찌 아는가?" 환관이 대답하였다. "이괄의 난을 피해, 주상께서 공주로 거동하셨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가가 남한산성의 행궁[6]에 이르렀을 때, 눈이 내렸다. 주상을 따라온 백관들 일부는 성 밖에서 노숙하였다. "이 성에 들어왔으니, 이제 뭔가 할 수 있겠다." 주상께서 말씀하시자, 남한산성으로 가자고 했던 김류가 말하였다. "이 성이 비록 험하다고는 하지만, 외롭고 위태로워 오래 머무실 수 없을 듯합니다. 내일 아침 일찍 과천을 거쳐 강도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후 대신들 사이에서 강도로 가자, 못 간다, 논의가 이어졌다. 주상께서 말씀하셨다. "하여간 오늘 떠나기는 힘들 것이오." 논의는 계속 이어졌다. 주상께서 엉뚱하게 말씀하셨다. "내가 홀로 강도로 가서 목숨을 다하고, 그대들은 여기 남아서 마치 임금이 여기 있는 것처럼 하면 좋지 않겠는가?"

밤에 적진에 갔던 최명길이 보고서를 보내왔다. "적진에 가서 화친하자 하니, 저들도 수긍하였습니다. 도성으로 들어온 군사는 수천 명에 불과합니다."

이 후에 조정에서 회의를 거쳐 강도로 들어가기로 결정하였다.

말먹이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광주목사의 볼기를 쳤다.

15일. 몹시 추웠다.

새벽닭이 울자마자 주상께서 남문으로 나가셨다. 눈이 얼어붙은 언덕에서 주상의 수레를 끌던 말이 미끄러져 넘어졌다. 주상께서 몹시 놀라 바로 성으로 돌아오셨다. 우리 주상께서 성을 나가실 것을 예상한 청나라 군사가 복병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에 알았다.

이른 아침, 적진에 갔던 최명길이 들어와 아뢰었다. "청나라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화친을 위해서 왔다. 그런데 백성들은 달아나 마을의 집이 비었고, 임금마저 파천하였으니 맘이 편치 못하다. 대신과 왕자를 보내어 예전의 맹약을 계승하고, 처음 척화를 건의한 자를 잡아 보낸다면 철군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최명길의 말에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 안정되었다.

호조에서 화친을 대비하기 위하여, 연회에 쓸 물품을 가져오도록 도성으로 사람을 보냈다.

---

3) 사현(沙峴, 모래재)은 현저동에서 홍제동으로 넘어가는 고개로 사령(沙嶺)이라고도 하였다.
4) 체찰사는 전쟁 등의 비상상황에서 군대를 지휘하는 등 군사 업무를 담당하는 관직이다.
5) 수구문(水口門)은 서울 중구에 있는 광희문(光熙門)이다. 시구문(屍軀門)이라고도 한다. 서소문(西小門)과 함께 시신(屍身)을 내보내던 문이다.
6) 행궁은 임금이 나들이 때 머물던 별궁이다.

적병이 국경을 침범한지 불과 오륙일 만에 도성에 들어왔는데, 접전 한 번 했다는 소식이 없고, 보고도 하지 않고 있는 도원수[7] 김자점 등에 대하여 벌 줄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주상께서 허락하지 않았다. 대신, 도원수 등에게 격문을 보냈다.

세자에게 따로 조정을 만들어 다른 곳으로 피난하게 할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주상께서는 남한산성에 …… 계셨다.

16일. 주상께서는 남한산성에 계셨다.

청나라 사람들은 저도[8]에 주둔하였다. 이 날, 청나라 군사가 성 외곽을 포위하였고, 사람과 가축을 처음으로 약탈하였다. 적이 성 가까이 이르도록 한 책임을 물어, 체부[9]에서 수어사[10] 이시백을 곤장 쳤다.

원래 남한산성은 급한 상황을 대비하는 곳이 아니었다. 곡식은 모두 산 아래에 있었고, 전쟁 장비도 성 안에는 없었다. 이러한 실정을 알게 되면서, 어떤 이는 싸워야 한다고 하고, 어떤 이는 싸워서는 안 된다고 하며 다퉜다. 여전히 강도로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었다. 이날, 이성구가 "여러 신하는 모두 떼어버리고, 장수 10여 명만 거느리고 강도로 가시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아뢰자, 주상께서는 "나 홀로 살아남은들 어떻게 면목이 서겠소."라며 거절하셨다.

군사들의 분위기가 흉흉하였다. 주상께서 홀로 성을 빠져나갈 것이라는 소문과, 김류 등이 자신의 가솔[11]이 강도에 있기 때문에 앞뒤 가리지 못하고 옮겨가자고 한다는 소문 때문이었다.

주상께서 체찰사 이하 장수들을 모아 놓고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나라의 후한 은혜를 받았으니, 마음을 다하라. 명령을 듣지 않는 자는 군율로서 다스리리라."

다시 적진에 갔다가 돌아온 최명길이 말하였다. "저들의 말을 듣고, 저들의 낯빛을 살펴 보건데, 세 가지 일[12]을 결정지으면 될 듯합니다." 김류가 말하였다. "왕자와 대신의 문제부터 빨리 결정 내리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주상께서 말씀하셨다. "말 한 필과 내가 차고 있는 옥환도를 먼저 정표로 보내주면 어떻겠소?" 김류는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하였으나, 병방승지 이경승은 "주상께서 쓰시던 물건을 어떻게 오랑캐에게 준다는 말씀입니까?"하면서 반대하였다.

결국, 중신인 심집을 대신이라 속이고, 종실에 불과한 능봉군을 왕의 아우라고 속여서 저들에게 보냈다. 그러나 청나라 사람들은 속지 않았다. 저들은, 반드시 세자를 보내야만 화친에 응할 수 있다면서, '능봉군을 왕자, 심집을 대신'이라고 말한 박난영을 죽였다.[13]

주상께서 세자와 함께 성을 순시하였다. 날씨는 몹시 추웠다. 청나라 사람들은 성을 방비하는 모습을 보고 성에 가까이 오지 않았다.

---

7) 도원수는 전시에 군대를 통솔하던 임시 관직으로, 주로 문관이 맡는다.
8) 저도는 삼전도 서쪽에 있었던 한강의 섬이다.
9) 체부는 체찰사가 일하는 관아이다. 체찰부라고도 한다.
10) 수어사는 정묘호란 이후 남한산성에 설치한 군영인 수어청을 관장하는 관직이다.
11) 김류의 아들은 김경징인데, 그는 병자호란 때 강도검찰사였으나, 강화도의 지리적 이점만 믿고,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으며, 강화도는 힘없이 함락되고 만다
12) 최명길이 언급하고 있는 '세 가지 일'은 조선의 국왕이 산성을 나와 직접 항복하는 것, 세자 등 왕자와 대신들을 인질로 바치는 것, 척화를 주장한 신하들을 청나라에 잡아 바치는 것 등이다.
13) '박난영을 죽였다.'는 내용은 '조선왕조실록'을 참조한 것이다. 석지형의 '산성일기'에는 조정에서 그의 안부를 걱정하는 내용이 여럿 보인다.

17일. 주상께서는 남한산성에 계셨다.

주상께서 성을 순시하며, 장대에 올랐다.

조정의 회의에서 성 안의 곡식은 몇 개월 치 뿐이고, 병장기도 부족하므로, 왕자를 보내어 싸움을 피하는 것이 낫겠다는 논의가 있었다.

대신 홍서봉 등을 보내, 왕자가 지금 강화도에 있으므로 불러와서 보내겠다고 하자, 저들은 반드시 세자라야 한다고 하였다. 홍서봉 등이 돌아와 보고하자, 김류 등이 세자를 보내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에 논의에 참여한 모든 이들은 통곡을 터뜨렸다. 세자는 문 밖으로 나갔다. 예조판서 김상헌과 이조참판 정온 등이 김류 등에게 말하였다. “나는 공들과 하늘을 함께 이고서 살 수 없다.” 주상께서 엉뚱하게 말머리를 돌리셨다. “존망이 오늘 밤에 결정 날 것이니, 야습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는 화친을 말하지 말라.”

청나라 군사가 전에 비하여 많아졌고, 주둔한 곳도 차츰 가까워져, 사람들이 겁에 질렸다.

세자가 주상께 아뢰었다. “일이 급박하면 소자가 나가기를 청할 것입니다.” 주상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이런 소식을 들은 성 안의 신하와 백성들이 서로 마주보며 눈물을 흘렸다.

성을 지키는 군졸과 총융청, 훈련원, 어영청 및 경기 광주, 양주, 과천, 수원 등의 군사가 수만에 가까웠다. 또 성은 높고 험준하였다. 이 때문에 화친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는 적었고, 싸우자고 말하는 이는 많았다.

주상께서 성을 순시하며 군사들을 위로하셨다.

18일. 주상께서는 남한산성에 계셨다.

방을 붙여 주상이 친림하는 무과 시험을 열어, 면천을 해주기로 하고 장사 백여 명을 모집하였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 청나라 군사 여러 명을 죽였다.

심기성이 스스로 성을 나가서, 유도대장으로 도성방어의 책임을 맡고 있는 그의 형 심기원과 함께 근기 지방의 군병과 사병을 거두어 모으겠다고 하여, 초토사의 직함을 주어 내보내기로 하였다.

주상께서 애통한 말로 호소하였다. “고립된 성에서 화친을 맺는 일은 이미 끝났다. 안으로는 믿을 세력이 없고, 밖으로는 개미새끼만한 구원병도 없다. 종묘와 사직의 위태로움을 어찌 차마 말하겠는가? 다함께 어려움을 헤쳐 나가자.” 듣고 있던 백관들이 통곡하였다. 봉림대군의 사부인 심광수가 화친을 주장하는 최명길의 목을 벨 것을 청하였다. 이후에는 적을 막을 계책을 말하는 이들이 많았다.

19일. 주상께서는 남한산성에 계셨다.

포수들을 모집하여 성을 나가 청나라 군사 여섯 명을 죽이고 말을 빼앗아 돌아왔다.

북쪽 성 위에서 어떤 무인이 뛰어내려 청나라 진영으로 달아났다. 북쪽 골짜기의 방비가 허술하여 백관들을 나누어 지키게 하였다.

주상께서 밀랍 속에 문서를 넣어, 강화유수 장신, 검찰사 김경징, 부사 이민구 등에게 지시하셨다. “적병이 남한산성을 에워싼 지 이미 6일이다. 외부의 원병은 오지 않고 명령을 전할 방도도 없다. 경들은 자기 임소에서 도·부원수와 여러 도의 감사 및 병사들에게 명령을 전달하여 불같이 구원병을 일으켜 적들을 쳐 없애도록 하라.”

20일. 주상께서는 남한산성에 계셨다.

주상께서 도원수 김자점, 부원수 신경원 등에게 급히 구원하라고 지시를 내리셨다. 또, 밀랍 속에 문서를 넣어 공청감사[14]와 병사, 전라감사와 병사, 경상감사와 병사 등에게 급히 달려와 구원할 것을 유시하셨다.

헌관 김상헌이 아뢰었다. “무릇 나라에서 지내는 제사의 희생은 수놈이어야 하는데, 어제 성황 제사에서 수소와 암퇘지를 함께 썼습니다. 희생을 바친 이들을 다스리겠습니다.” 주상께서 허락하셨다.

청나라 사람들이 남문에 이르러 “화친하자는 약속이 있었는데 어찌 응답이 없는가?”라고 하였다. 조정에서 사람을 시켜, “우리는 창과 방패로 싸울 것이다. 너희와 화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주상께서 강도의 일을 걱정하셨다. “그곳을 잘 지켜야 하는데, 김경징이 잘 해내려나 모르겠소.” 김류가 자신 있다는 듯 아뢰었다. “신의 아들놈이 불민하오나, 남이 하는 일이라면 해낼 것입니다.”

백관들이 북쪽 골짜기를 나누어 지키기 시작한 지 겨우 이틀 만에, 백관들에게 주상께서 지시하였다. “사대부들은 낮에는 성가퀴를 지키되, 밤에는 물러나 쉬라. 사대부들은 군사들과 고생을 함께 한다는 뜻을 보여줄 뿐이다. 늙고 병든 사대부들은 번을 서게 하지 말라.”

왕을 호종한 사람을 기록하여 올리게 하였는데, 모두 5백여 명이었다. 모두 역대 성조들이 3백 년 동안 충절과 의리를 잘 배양했기 때문이라고 여겼다.

21일. 주상께서는 남한산성에 계셨다.

몹시 추웠다. 백관들에게 명하여 옷과 이불을 바치도록 하였다. 어떤 이는 옷을 바치고, 어떤 이는 안장 위에 덮는 천을 바쳤다. 이렇게 모은 물건들을 군사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체부에서 보고하였다. “헌능 숲 속에 진치고 있는 군대에 사람을 보내 불화살을 쏘아 상응하자고 하고, 오늘 불화살 세 대를 쏘아 올렸더니, 그 쪽에서도 응하였습니다. 필시 충청도의 군대가 와 닿은 것 같습니다.”

교전(交戰)

22일. 주상께서는 남한산성에 계셨다.

군사를 선발한 후, 출전하여 청나라 군사 수십 명을 죽였다. 윤지원이라는 자가 쇠몽둥이를 들고 군사들보다 먼저 나가 청나라 군사 2명을 쳐 죽였다. 주상께서 불러 술을 하사하였다.

청나라 사람들이 화친을 요구했으나 거절하였다.

성 안의 땔감과 풀이 다 떨어졌다. 군사와 백관을 시켜 성을 나가 나무와 풀을 베도록 하였다.

23일. 주상께서는 남한산성에 계셨다.

군사들이 대거 출동하였다. 대장 이서가 북쪽 골짜기에 앉아 북을 두드리며 독전하였다. 적

14) 공청은 당시에 충청도를 부르던 이름이다. 충주와 청주에서 각 한 글자를 따서 충청도라고 한 것이지만, 해당 지역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는 경우 다른 지역의 이름을 따서 팔도의 이름을 고쳐 부르기도 하였다. 공은 공주를 뜻한다. ‘남한일기’ 속에서는 공청과 충청이라는 명칭이 같이 사용되고 있다.

의 머리 하나를 베었으나, 우리 군사 중에 화살에 맞은 자가 20여 명이었다. 주상께서 어의에게 명하여 치료하게 하고, 소를 잡아 고기를 하사하였다. 적의 머리를 벤 자는 주상이 직접 참여하는 무과에 나갈 자격을 얻었다.

남풍이 불었다.

망궐례[15]

24일, 주상께서 남한산성에 계시면서, 명나라 황제의 탄일을 맞아, 친히 명나라 궁궐을 향하여 절하는 망궐례를 행하였다.

건초와 군량이 모두 부족하였다. 한흥사의 승려 희안이 백지 40여 속과 산나물과 순무 각한 섬씩을 진상하였다. 개원사의 승려 호열이 꿀 서 말을 진상하였다.

포수 300명, 사수 100명, 지원군 100명, 마대 50명 등이 북문과 연주봉 암문으로 나가 적병 189명을 죽이고, 적의 활, 화살, 칼 등을 노획하였다고, 어영청에서 보고하였다.

오후에 큰 흙비가 와서 가까운 거리에서도 소와 말을 구별하지 못하였다. 성을 지키는 군졸들이 모두 얼고 젖어서 벌벌 떨었다. 비가 그치기를 기원하는 기청제를 올렸다. 주상께서 땅에 엎드려 슬피 우시면서 기도하셨다. 기도를 끝내고도 거적을 깔고 앉아 내처 슬피 우셨다. 날은 밤이 깊어서야 개었다. 주상이 환관을 보내어 성곽을 지키는 군사들을 위로하였고, 세자도 그리하였다. 장수와 군사들이 모두 감격하였다.

굶어 죽은 말을 군사들에게 먹이다

25일. 주상께서는 남한산성에 계셨다.

예조에서 아뢰었다. "백제의 온조왕이 오래 전에 이곳에 도읍을 정했으니, 반드시 그 신이 있을 것입니다. 옛 사람들은 군사를 일으키거나 주둔할 때 그 땅의 신에게 제사지냈습니다. 주상께서 이곳으로 들어오신 후, 성황께는 제사를 지냈으니, 온조왕에게도 제사를 지내야 할 것입니다." 주상께서 그리하라 하셨다.

말 몇 마리가 굶어 죽자, 체부에서 아뢰었다. "성 안에 말먹이 풀은 바닥났는데, 말은 수 없이 많아 며칠 못가 모조리 죽게 되었습니다. 난이 평정된 후에 값을 쳐 주기로 하고 거둬들여 군사들에게 먹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상께서 그리하라 하셨다.

사간원에서 아뢰었다. "성이 고립되어 10여 일이 지났는데, 공청병사는 죽산까지 와서도 곧바로 전진하지 않으니, 군율로 처단해야 합니다. 우선, 타일러 스스로 공을 세우도록 해야겠습니다." 주상께서 그리하라 하셨다.

주상께서 하염없는 말씀을 하신다. "구원병이 모였더라면, 적병의 기를 죽이고, 우리 사기를 떨칠 터인데 …… 어찌 이리 시간을 끈다는 말인가." 이경증이 이 말을 받아 말한다. "당초부터 잘못하여 사람들이 화친만을 믿고 꼼짝을 않는 것입니다."

---

15) 여기서 말하는 망궐례는 정월 초하루, 동지, 명나라 황제의 생일, 명나라 황태자의 생일 등, 매년 4회에 걸쳐, 조선의 임금과 신하가 중국의 궁궐을 상징하는 '궐(闕)'이라는 글자를 새긴 팻말을 놓고 절하는 의식이다. 조선의 지방 수령들은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조선의 궁궐을 상징하는 궐(闕)'이라는 글자를 새긴 팻말을 놓고 절하는 망궐례를 행하였다.

간밤, 성을 지키는 군사들은 나뭇가지로 몸을 가리고 지냈다. 여러 날을 추워 몸이 얼은 데다 다시 비에 젖어 앓지 않는 군사들이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얼어 죽은 자가 없는 것이 다행이었다. 주상께서 말을 이으셨다. "혼자 따뜻한 곳에 있으면서도 한시도 마음 편할 때가 없었다오. 군사들은 모두 상민이니 그렇다지만, 경들은 어떻게들 버티고 지냈소?"

청나라 군사들이 조선 사람들을 시켜 소나무를 베어 와서, 성을 둘러 목책을 만들었다. 이를 본 성 안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헛된 일을 한다고 비웃었다. 그러나 6, 7일 지나 목책이 둘러지자, 성 안팎을 출입하기 어려워졌다. 그 동안 밤을 틈타 성 안팎을 오갔으나, 목책이 생기고 나서는 성 밖으로 나가 나무와 풀을 베다가 적들에게 잡히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러자, 성 안의 사람들 중에서 청나라 군영에 투항하는 자가 생겼다. 성을 나가 나무와 풀 베는 것을 금지하였다.

적진에 술과 고기를 보내다

26일. 주상께서는 남한산성에 계셨다.

날씨는 더욱 추워졌고, 눈비가 뒤섞여 내렸다. 참판 이경직이 "아름답도다! 얼음성이여. 적이 쳐들어 와도 오를 수가 없구나."라고 하였다. 이 말을 들은 모든 이들이 냉소를 지었다.

어떤 이가 와서 "강원도의 장수 권정길이 검단산에서 적과 싸워 넷을 베었습니다."라고 전하였다. 사람들이 매우 기뻐하였다.

화친을 논할 기미가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하여 청나라 진영에 사신을 보내자는 논의가 있었다. 주상께서 소와 술을 마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청나라 진영에 보낼 사신에게 들려 보낼 요량이었다. 한편으로는 적들과 일전을 벌여야 한다는 주장이 여전히 있었다. 사신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주상께서 보낼 물건이 무엇인지를 물었고, 소와 술이라 대답하자, 주상께서 말씀하셨다. "돼지로 주었으면 좋으련만……" 내처 말씀하셨다. "화친하자는 뜻은 언급하지 말고, 세시 선물이라고만 하는 것이 좋겠다."

27일. 주상께서는 남한산성에 계셨다.

강원도에서 온 승려가 강원감사의 보고를 전했다. "원주 영장[16]을 시켜 군병을 거느리고 남한산성으로 가도록 하였습니다. 신은 남은 군사들을 독려하여 뒤따르겠습니다." 원주 영장 권정길에게 방어사의 직무를 맡게 하여, 군병을 거느리고 온 것을 치하하였다.

강원도의 군사가 가까이 왔으니, 소와 술을 청나라 진영에 보내는 일은 중지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주상께서, 처음에 그 말이 맞는다고 하셨으나, 소 두 마리와 술 열병을 보내기로 하였다. 소와 술을 본 적장이 말했다. "하늘이 너희 나라를 우리에게 주었다. 너희 국왕은 돌구멍 안에 들어가 있어서, 안팎이 통하지 못하고, 신하들은 배고픔에 떨고 있다. 어디서 소와 술을 구해 우리에게 보내는가? 도로 가지고 가서 굶주린 신하와 군사들에게 주어라."

주상께서, 파천해 있는 상황에서 홀로 후하게 먹을 수 없으니, 수라를 줄이고, 생닭 등은 들이지 말라고 지시하셨다.

포로였던 조선인이 도망하여 밤에 성 아래 이르러 받아 주었다. 그는, 청나라 사람들이 포로로 잡은 조선인 장정들의 머리를 깎고 갑옷을 주어 선발부대로 삼았으며, 노약자는 나무하

16) 영장(營將)은 각 도의 지방군대를 관할하기 위하여 설치한 진영(鎭營)을 담당하는 관직이다. 진영장(鎭營將)이라고도 한다.

고 가축을 돌보게 하고, 부녀자 중 요염한 자는 함께 말을 타고, 추한 자는 밥 짓고 물 긷게 하고, 아이들은 모두 죽였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

28일. 주상께서는 남한산성에 계셨다.

공청감사 정세규가 진군한다는 장계를 올리고, 꿩 세 마리를 바쳤다.

심기성이 상소를 올렸다. "신이 외람되이 천은을 입어 초토사의 직을 받았습니다. 포위를 뚫고 나가 은혜에 보답하려 하였으나, 마침 상중에 있고, 큰 병을 치러, 승려들이 혼자 몸으로 드나드는 것과 같지 않아, 몇 되의 쌀과 속옷 한 벌이라도 하인에게 지워 나가야겠기에, 나가려다가 되돌아 온 것이 여러 차례입니다. 가벼이 나갈 수 없사오나, 저들의 틈을 보아 나가겠사옵니다. 제 직명을 깎아,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죄를 다스려, 본보기를 삼아 주시옵기 바랍니다." 주상께서는 "다시 형세를 보아 나가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셨다.

북문 밖 전투, 그 경솔함

29일. 주상께서는 남한산성에 계셨다.

날씨가 조금 따뜻해졌다.

날래고 과감한 이들 100여 명과 활 잘 쏘는 이들 1,000여 명이 성을 나갔다. 체부에서 깃발을 사용하여 싸움을 독려하였으나, 사졸들은 내려가지 않았다. 체부에서 군관 유호를 보내, 참퇴장[17]의 목을 베겠다고 하였다. 이에 참퇴장 신성립이 칼등으로 우리 군사들을 마구 쳐서 산을 내려가도록 하였다.

우리 군사들이 성 북쪽에 주둔하고 있던 청나라 진영에 이르니, 청나라 군사들은 모두 노략질을 하러 나갔는지, 아주 적은 수의 수비군만 있었다. 우리 군사들이 남아있던 소와 말 몇 마리를 다투어 끌어냈다. 병든 청나라 군사 하나의 목을 베려하자, 수비하던 청나라 군사 5, 6명이 말을 달려 돌진해 들어왔다. 우리 군사는 급히 변발만을 잘라 돌아왔는데, 상을 타고자 했기 때문이었다. 소와 말을 끌어 오던 군사 2명은 청나라 군사에게 붙잡혔다.

저물녘에 성 위에서 고함을 쳐서 군사들을 철수시켰다. 그 때, 어디에 있었는지 청나라 군사들이 일시에 번개같이 쇄도하였다. 우리 군사들은 쓰러져, 버들가지처럼 언덕으로 거꾸로 떨어졌다. 우리 군사들의 시체가 구렁에 가득하고, 버려진 병기가 산에 가득하였다. 남은 우리 군사는 백여 명도 못 되었다. 패한 군사들이 성에 들어왔는데 상처를 입지 않은 자가 없었다.

체찰사 김류가 벌 받기를 청하였으나, 주상께서 말씀하셨다. "알았다. 처벌을 기다릴 것 없다." 주상께서는 이날 저녁에 수라를 들지 않으셨다.

군사들의 사기가 꺾였고, 다시는 싸우자고 말하지 않았다.

아아! 장수들이 나서서, 화살과 돌을 피하지 않고, 앞장서야 하거늘 …… 어찌 장수들은 모두 성 안에 머물면서, 군졸들만 밖에서 목숨을 바치라 하는가? 청나라 군사들이 유인하는 계책을 쓰는 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를 두려워한다고 여겼으니 경솔하다. 말 달리며 활 잘 쏘는

17) 참퇴장(斬退將)은 후퇴하는 군사들의 목을 베는 장수이다.

별초무사들에게, 갑옷을 입혀 도보로 보내 철기병과 싸우게 하였으니, 어리석구나. 청나라 군사는 총포를 두려워하는데 포수들은 후미에 두고 무사만 보냈으니 무슨 뜻인가? 군대가 나아가고 돌아오는데 징과 북을 사용하지도 않았으니, 어린아이 같구나.

30일. 주상께서는 남한산성에 계셨다.

도성을 바라보니 연기와 화염이 하늘에 자욱하고 살기가 사방에 가득 차 있었다.

유도대장 심기원이 밀랍에 문서를 넣어 보고하였다. "16일 밤에 자원한 군사와 휘하 군사로 청나라 군사 4백여 명을 죽이고 돌아와 도성의 문을 닫고 굳게 지키고 있습니다." 글에 과장하여 자랑하는 말이 많았다.

경상병사가 장계를 올려 "조령에 이르러 청나라 40여 기병을 만나 모조리 무찔렀으며, 10여 기만 달아났습니다."라고 하였다.

오후에 검단산에서 포성이 들렸다. 성 안에서는 강원도의 군사들이 승리한 것으로 여겼다.

성 안의 식량이 바닥을 드러냈다. 백관 및 노비의 급료를 줄여서 7홉을 주었다. 전직 벼슬아치와 호종한 이들에게는 처음부터 종과 말을 먹이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자신의 급료만 주었다.

저물 무렵에 눈이 내렸다.

새벽이 아닌데 닭이 울자, 불길하게 여겼다.

주상께서는 여전히 남한산성에 계셨다.

정축년(1637년, 인조 15년) 정월 1일. 주상께서는 남한산성의 행궁에 계셨다.

정축년은 숭정[18] 10년이다.

백관들이 행궁에 이르러 문안하였다.

새벽에 망궐례를 행하였으나, 손을 휘두르고 발을 구르는 무도는 행하지 않았다.

성가퀴를 지키는 군사들에게 말고기와 누런 콩 서 홉씩을 나눠 주었다.

사람을 청나라 진영에 보내어 안부를 묻게 하였다. 청나라 사람들이 말했다. "황제께서 친히 오셨으니, 모든 판단은 황상께서 하신다." 사신이 돌아와 황제가 왔다는 사실을 보고했으나, 모두들 믿지 않았다. 그 때, 망월봉 위에 황색 양산을 받쳐 들고, 호각을 불며, 포를 쏘고, 북을 치면서, 성의 외곽을 순행하는 모습이 보였다. 청나라 황제로 여겨졌으나, 진위는 분명하지 않았다.

땅거미가 질 무렵 청나라 진영을 정탐하게 하였다. 청나라 사람들이 말하였다. "황제께서는 아직 산에서 내려오지 않으셨다." 저들이 또 물었다. "검단산의 장수는 누구인가? 우리가 이미 물리쳤다. 충청도의 구원병도 격파하고, 도원수도 사로잡았다." 아마도 다른 이를 도원수 김자점으로 잘못 안 듯하였다. 사신이 돌아와 보고하였으나, 모두들 반신반의하였다.

주상께서는 남한산성으로 들어온 이후, 마음을 태우고 번뇌하여 잘 때도 허리띠를 풀지 않으셨다. 드시는 것도 하루에 쌀 한 움큼과 닭다리 하나에 불과하였다.

---

18) 숭정(崇禎)은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인 숭정제의 연호이다. 1628년을 원년으로 1644년까지 사용되었다. 조선의 사대부들은 명나라가 멸망한 후에도 '숭정기원후(崇禎紀元後) ○○년'의 형태로 '숭정(崇禎)' 연호를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 사용하였다.

대청국관온인성황제(大淸國寬溫仁聖皇帝)[19]가 조선 국왕에게 조서[20]로 유시[21]하노라

2일. 주상께서는 남한산성에 계셨다.

성 안의 식량이 떨어지자, 좌상 홍서봉을 보내 청나라 진영에 화친을 청하였다. 청나라 왕자는 홍서봉에게 땅 바닥에서 두 번 절을 올리도록 하였다. 홍서봉이 절을 하고 말하였다.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의심하여 이리 되었습니다. 작은 나라는 진실로 감히 배은망덕하지 않았습니다." 청나라 사람들이 황제의 조서를 주어, 홍서봉이 무릎을 꿇고 받아들고서 돌아왔다. 겉봉에는 "대청국관온인성황제가 조선 국왕에게 조서로 유시하노라."라고 쓰여 있었다.

조서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았다. "…… 짐이 이번에 정벌하러 온 것은 원래 죽이기를 좋아하고 얻기를 탐해서가 아니다. 본래는 늘 서로 화친하려고 했는데, 그대 나라의 군신이 먼저 불화의 단서를 야기 시켰기 때문이다. …… 그대 나라 군신은 우리를 배반하고 도망한 이들을 받아들여 명나라에 바치고, 명나라 장수가 투항해 오면 군사를 일으켜 길을 막고 끊었으며, 우리의 구원병이 저들에게 갈 때에도 그대 나라의 군사가 대적하였다. …… 항거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고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받아들일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반드시 사로잡고 성안이나 초야에서 마음을 기울여 귀순하는 자는 조금도 침해하지 않고 반드시 정중하게 대우할 것이다. ……"

모두 화친해야 한다고 말했으나, 예조 판서 김상헌과 이조 판서 정온은 결사코 반대하였다.

주상께서 장유, 최명길, 이식 등에게 회답하는 글을 쓰게 하셨다.

조선 국왕이 삼가 대청국관온인성황제에게 글을 올립니다

3일. 주상께서는 남한산성에 계셨다.

완풍부원군 이서[22]가 병으로 고통 받다가 이날 밤에 죽었다. 사람들이 말하였다. "남한산성을 쌓아 나라로 하여금 위급한 상황에 의지할 곳이 되었고, 이곳에서 죽었다."

장유 등이 지은 글을 가지고 왔다. 서식을 정하고 말씨를 맞추는 일을 논의하였다. 주상께서 "일찍 죽지 못하고 이런 망극한 꼴을 당하는구나."하시고, 한동안 눈물을 흘리셨다.

장유와 이식의 글은 어느 정도였으나, 최명길의 글은 매우 공손한 표현으로 작성되어 있었다. 겉봉에는 "조선 국왕이 삼가 대청국관온인성황제에게 글을 올립니다."라고 쓰여 있었다. 체부에서 최명길의 손을 잡고 말하였다. "우리가 만고에 욕된 이름을 피하지는 못하겠으나, 종묘와 사직은 보존해야합니다." 최명길이 지은 글을 정서하였다. 그러나 김상헌과 정온 등은 여전히 화친을 반대하였다. "불행히도 군사들이 다 죽게 되면 사대부가 나가서 싸우고, 사대부가 모조리 죽었을 때, 그 때 애걸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

19) 관온인성황제(大淸國寬溫仁聖皇帝)는 청 태종의 존호이다. 청 태종의 시호는 응천흥국홍덕창무관온인성예효경민소정융도현공문황제(應天興國弘德彰武寬溫仁聖睿孝敬敏昭定隆道顯功文皇帝)이다.

20) 조서(詔書)는 임금의 명령을 일반에게 알릴 목적으로 적은 문서이다.

21) 유시(諭示)는 백성을 타일러 가르치는 일. 또는 그러한 내용을 담은 문서이다.

22) 이서(李曙)는 인조반정 때의 공으로 완풍군(完豊君)에 봉해졌다. 남한산(南漢山)의 형세를 살핀 후, 백제가 고구려와의 전투 시에 이곳을 도읍으로 삼은 뜻을 읽고 인조에게 건의해 산성을 고쳐짓도록 하였으며, 포신이 세 개인 삼혈총(三穴銃)과 조총(鳥銃)을 많이 제조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이서의 사망 기사가 1월 2일자에 보인다.

국서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았다. “저희 작은 나라가 대국에 죄를 얻어 스스로 병화를 불러 외로운 성에 의탁한 채 위태로움이 조석에 닥쳤습니다. …… 황제께서 궁벽하고 누추한 곳까지 오셨다기에 반신반의하며 기쁨과 두려움이 교차하였습니다. 이제 대국이 옛날의 맹약을 잊지 않고 분명하게 가르침과 책망을 내려 주어 스스로 죄를 알게 하였으니, 지금이야말로 작은 나라의 심사를 펼 수 있는 때입니다. …… 작은 나라로 하여금 계책을 바꾸어 스스로 새롭게 하도록 용납해 주신다면, 작은 나라가 마음을 씻고 종사하는 것이 오늘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대국이 기꺼이 용서해 주시지 않고서 기필코 그 병력을 끝까지 쓰려고 한다면, 작은 나라는 사리가 막히고 형세가 극에 달하여 스스로 죽기를 기약할 따름 입니다. 감히 심정을 진달하며 공손히 가르침을 기다립니다. 숭정 10년 정월 초3일.”

청나라의 연호를 쓰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삼사에서 간하여 중지시켰다. 국서를 보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좌상 홍서봉과 참판 이경직이 국서를 가지고 청나라 진영으로 갔다. 청나라 사람이 말했다. “이번 거병은 청나라와 몽고가 다 같이 분노하여 결정한 것이다. 몽고의 여러 왕이 오기를 기다려 상의한 후 통지하겠다.”

도원수 김자점이 처음 교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다.

현자총을 쏘아 적의 장수 셋을 죽였다는 보고가 있었다.

화친하겠다는 답변은 오지 않았다

4일. 주상께서는 남한산성에 계셨다.

성의 서남쪽에 주둔한 청나라 군사들이 신천으로 옮겼다. 성 안의 사람들은 우리 군사들이 사방에서 모여들 것으로 알고 피한 것으로 여겼다.

협수사[23] 유백증이 체찰사 김류 및 원임 윤방의 목을 벨 것을 청하였다. 수반의 자리를 차지하고 나라를 위태롭게 하였다는 것이었다. 상소가 올라오자 김류는 산 속의 절로 피하려고 하였다. 주상께서 김류를 위로하며 불러들이고, 유백증을 파면하였다.

김상헌이 주상을 뵙고 말하였다. “사신이 자주 왕래하면 흉계에 빠지기 쉽습니다. 싸워 지킬 채비를 단단히 하여야 합니다.” 이에 김류가 반대하였다. “설사 산을 내려가 약간의 적을 잡을 수 있다 하여도 그것으로 적의 세력이 꺾일 리 만무합니다. 우리 기세가 한 번 꺾이는 날에는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사간 이명웅 등이 아뢰었다. “어제 화친을 청했지만, 이루지 못했습니다. 화친이 이루어질 것처럼 말하여 부녀들이 피난을 하지 못하고, 욕을 당하게 만든 것이 누구입니까? 최명길의 죄를 다스려 군사들의 마음을 진정시키소서. 최명길의 죄는 머리털을 뽑아 세어도 속죄하기 어렵습니다.” 주상께서 허락하지 않았다.

비변사에서 군사들에게 추위를 피하라고 주던 빈 가마니를 말먹이로 쓰겠다고 보고하였다. 날씨가 어느 정도 풀렸고, 먹이풀이 바닥나서 말들이 굶어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경증이 늙고 병든 신하들을 살펴 주실 것을 아뢰니, 주상께서 말씀하셨다. “그것 좋은 말

23) 협수사(協守使)라는 관직명은 조선왕조실록에서 단 2회 보인다. 인조실록 인조 15년 1월 4일의 기사는 다음과 같다. “당시 조정에서 재신(宰臣)을 뽑아 협수사(協守使)의 명칭을 주어 성중(城中)의 사대부를 통솔하면서 북성(北城)의 수비를 돕도록 하였는데, 유백증이 파면되자 이목(李穆)으로 대신하게 하였다.”

이오. 물고기 말린 것이라도 그들에게 주시오.” 마른 물고기를 구할 수 없다고 아뢰니, 주상께서 말씀하셨다. “그냥 말해 본 것이오.”

5일. 주상께서는 남한산성에 계셨다.

우리 군사 두 명이 성을 넘어 도주하다 잡혔다. 체부에서 목을 베어 조리돌렸다.

야습을 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주상께서 말씀하셨다. “야습을 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있는 적의 병기가 예리하여서, 차질이 생길까 걱정하는 것이오.”

성 안의 군사와 밖의 구원병이 합세하여 청나라 군사를 협공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주상께서 말씀하셨다. “협공을 한다면 적을 깨뜨릴 수 있겠지만, 구원병이 오지 않으니, 그들을 기다려야 하겠소.”

6일. 주상께서는 남한산성에 계셨다.

큰 눈이 내리고 바람이 불었다. 낮에는 짙은 안개가 기어 지척도 분간할 수 없었다.

남병사 서우신이 보고하였는데, 함경도 서남쪽의 군사들이 합세하여 진군한다는 내용이었다.

승정원에서 완풍부원군이 죽은 이후, 고기나 생선을 드시지 않는 주상께 그 중단을 청하였다. 주상께서 닷새를 채워 중단하기로 하셨다.

청나라 군사가 산야를 온통 둘러싸서 그 수를 알 수 없었다.

우리 사신이 청나라 진영에 이르니, 사다리와 방패가 진중에 가득 쌓여 있고, 병장기 만드는 소리가 들려 조만간 성으로 밀어닥칠 것으로 보였다. 짙은 안개 속에서 모두가 벌벌 떨며 두려워하였다.

7일. 주상께서는 남한산성에 계셨다.

전라감사 이시방이 수하의 군사와 승병을 이끌고 안성에 이르렀고, 전라병사 김준룡이 용인에 이르렀다는 보고가 있었다. 성 안에 있는 이들이 의지할 바가 생긴 것으로 여겼다.

도원수 김자점의 보고는, 전하께서 포위를 당한 것을 알지 못하고서 이제야 비로소 군사를 보낸다는 것이었다. 이 말을 들은 자들이 모두 분개하였다.

전라감사와 병사에게 다녀온 산성 사람 서흔남에게 육품직을 내렸다. 서흔남은 그동안 수시로 성 밖 출입을 하며 소식을 전하였고, 적병도 3, 4명을 죽여 천한 신분을 면한 자였다. 또, 함경감사와 도원수 처소에 다녀온 승려에게 당상 직첩을 내렸다.

주상께서 거처하는 전각의 정남쪽에 까치가 와서 머물렀다. 모두 좋은 징조로 여겼다.

8일. 주상께서는 남한산성에 계셨다.

눈이 조금 내렸다. 창고에 쌀이 한 석 남짓 남았다. 관량사 나만갑이 백관의 노비들에게 벼를 찧게 하여 군량으로 지급하였다.

예조에서 아뢰었다. “얼마 전에 온조왕의 제사를 지냈는데, 미진한 점이 많았습니다. 제사지낼 술이 잘 익었으니, 날짜를 정하여 다시 제사를 지내야겠습니다. 또 숭은전에 있던 원종의 영정을 개원사에 모셨으니, 제사를 지내야겠습니다.” 온조왕에 대한 제사는 중신을 보내어 지내고, 숭은전에 대한 제사에는 주상께서 몸소 지내기로 하셨다.

9일. 주상께서는 남한산성에 계셨다.

날씨가 조금 따뜻해졌다.

예조에서 숭은전 제사에, 전례에 따라 돼지 심장탕을 쓸 것인지, 생선과 고기를 빼고 간소하게 차릴 것이지를 여쭈었다. 무릇 제사에는 수퇘지를 써야하나, 암퇘지뿐이어서, 생선과 고기를 빼기로 하였다.

10일. 주상께서는 남한산성에 계셨다.

예조판서 김상헌에게 명하여 온조왕에게 제사를 올리도록 하였다.

어떤 이가 포수와 함께 밤에 나가 청나라 복병을 급습하겠다고 하여 허락하였다. 그는 죽은 조선 군사의 머리를 취하여 청나라 군사처럼 머리를 깎아 바쳤으나, 발각되어 처형되었다.

11일. 주상께서는 남한산성에 계셨다.

큰 바람이 불고 몹시 추웠다.

밝을 녘에 주상께서 몸소 숭은전 영정 앞에서 제사 지내셨다.

체부에서 장수와 군사들에게 10년 동안 조세와 잡역을 면제할 것이라고 달랬다. 군졸들이 모두 믿으려 하지 않았다.

저녁에 청나라 군사들이 헤아릴 수 없이 서북쪽에서 왔다. 조선의 구원병은 메아리조차 없었다. 검단산에 있던 강원도의 군사도 조용하고 움직임이 없었다.

홍서봉에게 통지하겠다던 청나라 사람들의 소식은 없었다.

국서를 다시 보내다

12일. 주상께서는 남한산성에 계셨다.

성 밖의 땔감과 풀은 모두 다 태워졌으며, 얼마 남지 않은 군마도 서로 꼬리를 깨물었다.

사냥꾼이었다가 군적에 오른 자들은 성을 넘어 적에게 투항하였다.

방아 찧는 일을 승려들과 백관의 종들이 하고 있으나, 일손이 부족하여, 관원들을 보내겠다고 호조에서 아뢰었다. 주상께서 허락하시고, 선조의 아들들인 의창군·경창군·인흥군·영성군과 손자인 능원대군 댁에 나락 두 섬씩을 내려주게 하셨다.

주상께서 순시하며 장수와 군사들을 위로하였으나 눈물을 흘리는 자는 없었다.

13일. 주상께서는 남한산성에 계셨다.

병조에서 군사들의 노고에 따라 보상하는 것이 좋겠다고 아뢰니, 주상께서 허락하셨다.

다시 글을 지어 홍서봉이 청나라 진영에 가지고 갔다. 고친 국서는 대략 다음과 같았다. “지난번에 작은 나라의 신하들이 군문에 글을 올려 여쭈었는데, 황제로부터 장차 말씀이 있을 것이라고 하기에, 작은 나라의 임금과 신하들은 발돋움하고 목을 빼어 날마다 은혜로운 말씀을 기다렸으나 지금 열흘이 지나도록 분명한 회답이 없습니다. 이에 곤궁하고 사정이 급박하여 다시 아뢰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니, 황제께서는 살펴 주소서. ……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에 복종하고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기는 것이야말로 당연한 이치인데, 어찌 감히 대국과 서로 견주겠습니까. 다만 명나라와는 대대로 두터운 은혜를 받아 명분이 이미 정해졌습니다. 일찍이 임진년의 환란에 작은 나라가 곧 망하게 될 운명이었는데, 신종 황제께서 천하의 군사를 동원하여 물·불에 빠진 백성들을 건져내고 구제하셨으므로, 작은 나라의 백성들이 지금까

지도 그 은혜를 마음과 뼈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차라리 대국에게 잘못 보이는 한이 있더라도 차마 명나라를 저버릴 수는 없다고 하니,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은혜를 베푼 것이 두터워 사람을 깊이 감동시켰기 때문입니다. …… 지난해 작은 나라의 일처리가 잘못되어 대국으로부터 여러 차례나 진지하게 가르침을 받았는데 여전히 스스로 깨닫지 못하여 화란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만일 잘못을 용서하고 스스로 새롭게 되도록 허락하여 종사를 보존하고 대국을 오래도록 받들게 해 주신다면, 작은 나라의 임금과 신하가 장차 마음에 새기고 감격하여 자손 대대로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고, 천하에서도 이를 듣고 대국의 위신에 복종하지 않음이 없게 될 것입니다. …… 지금 황제께서 바야흐로 영명하고 용맹스런 계략으로 제국을 어루만져 안정시키고 새로 황제의 명칭을 세우면서 맨 먼저 관온인성(寬溫仁聖) 네 글자를 내걸었습니다. 이 뜻이 대체로 장차 천지의 도를 체득하여 패왕의 사업을 넓히려고 하는 것이니, 저희 작은 나라처럼 지난날의 잘못을 고치고 스스로 넓은 은혜에 의지하기를 바라는 자에 대해서는 의당 끊어서 버리는 가운데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할 듯합니다. 이에 다시 구구한 정을 펴 집사에게 명을 청하는 바입니다."

홍서봉이 용골대와 마부대에게 지극히 공손한 자세로 말했다. "천지간에 미미한 벌레와 초목마저 황상의 소유가 아닌 것이 없는데, 차마 동쪽의 백성들을 모두 도탄에 빠뜨려 구휼해 주지 않으려 하십니까?" 용골대 등이 대답하였다. "지금 몽고의 왕들이 모두 모여 있으니, 상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내일 일찍 서문으로 나오는 것이 좋겠다." 이 뒤부터 우리 조선인들은 정문인 남문을 통하여 출입하지 못했다.

성 안의 식량 상황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졌다.

청나라 군사 중에 나가서 약탈하던 자들이 사방에서 모여들어 서쪽 교외에 진을 쳤다. 좌상 홍서봉이 서문으로 나갔다. 용골대와 마부대 두 장수가 정명수·김석시·김여령 등을 거느리고 나와 물었다. "맹약을 어긴 잘못이 조선에 있는가, 우리 청나라에 있는가?" 홍서봉이 대답하였다. "작은 나라가 참으로 잘못하였습니다." 다시 용골대 등이 "어찌 오래도록 출전하지 않는가?"라고 물었고, 홍서봉이 "어찌 감히 큰 나라와 맞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라고 대답하였다. 용골대와 마부대가 "기다리면 조서를 내릴 것이다."라고 하였다. 홍서봉은 다시 빈 손으로 돌아왔다.

큰 바람이 불었다.

주상께서 성을 순시하였다.

14일. 주상께서는 남한산성에 계셨다.

큰 바람이 불었다.

백관들과 호종하는 사람들에게 주던 쌀을 줄여서 5홉을 지급하였다.

성을 지키는 군사 중에 직책을 받기를 자원하는 자에 대하여 차등 있게 직책을 제수하도록 명하셨다.

15일. 주상께서는 남한산성에 계셨다.

심기원의 군관이 보고하였다. "함경감사와 남북병사가 경기도 양근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김자점이 황해도 토산에서 적을 물리치고 지금은 철원에 있습니다. 이 부대를 기다려 용진으로 나아가 협공할 것 계획입니다." 또 말하기를 "북쪽의 군사들이 매우 용맹합니다. 곧장 산성 아래로 돌진하여, 산성의 포위를 풀고 적을 섬멸하면 공로에 상을 내려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라고 하였다. 이 말을 들은 자들이 모두 장하게 여겼다.

또 평안도의 세 별장이 정예 8천여 명을 거느리고 강원도 안협에 도착하였고, 전라병사 김준룡도 말위천에 이르렀다고 하여, 모두 기뻐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경사 좌우병사가 쌍령에서 청나라 군사를 만나 패해 달아났고, 공청 감사 정세규도 패하여 행방을 알지 못한다."고 하니 사람들의 마음이 다시 꺾였다.

명분을 지키다 죽을 것인가

16일. 주상께서는 남한산성에 계셨다.

홍서봉이 성을 나가서 용골대와 마부대를 만나, "지난번 국서는 어찌된 것인가?"라고 물었다. 용골대 등은 "글을 아직 마치지 못했을 뿐이다."라고 답하였다. 갑자기 망월대 위에 크게 초항[24]이라는 글자를 써 놓은 깃발이 보였다. 우리가 놀라서 마음을 바꾸도록 하고자 함이었다.

17일. 주상께서는 남한산성에 계셨다.

청나라 사람들이 서문에서 외쳤다. "화친의 일을 결정짓고자 대신을 만나보길 원한다." 홍서봉 등 세 사람이 나가니 저들이 답서를 주었다. 답서에는 우리가 고쳐 보낸 국서에 대하여 반박하는 내용과 함께 다음과 같은 문구가 들어있었다. "살고자 한다면 성문을 나와 귀순하고, 죽고자 한다면 성문을 열고 나와 싸우라."

세 사람이 돌아와서 주상을 뵈었다. 홍서봉이 말하였다. "과장하지 않은 말이 없고, 같지 않은 말이 많아 실상이 어떠한지 종잡을 수 없습니다. 지극히 흉악한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윤휘가 말하였다. "저들이 '우리를 적이라 했는데, 우리가 무엇을 도적질 하였기에 번번이 이리 말하는가?'라고 하였습니다." 최명길이 말하였다. "저들이 말하길, '좋게 지내려 해도 대하기를 매번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화친을 한다는 말인가?'라고 하였습니다." 주상께서 잘라 말씀하셨다. "답서를 보내야 하오."

이시우가 아뢰었다. "경기감사와 경기도의 몇몇 수령들이 성안에 들어와 있어, 경기 일원이 내팽개쳐진 꼴입니다. 수령들이라도 임시로 세워야겠습니다." 주상께서 조치케 하겠다고 하셨다.

18일. 주상께서는 남한산성에 계셨다.

청나라 사람들이 남문에서 "화친을 하고자 한다면 빨리 알리라. 아니면 19일과 20일에 성을 공격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들은 북쪽 골짜기, 북문 그리고 서문에서도 소리 쳤다. 그러나 우리 조선인이 성을 나가기도 전에 청나라 사람들은 모두 돌아갔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한 것이다.

주상께서 청나라에 보낼 답서를 작성한 이들과 함께 답서를 검토하셨다. 대신들이 답서의 내용을 알려줄 것을 청하였다. 주상께서 내어주셨다. 이것을 돌려 읽던 예조판서 김상헌이 답서를 찢고 통곡하며 들어와 아뢰었다. "이러한 문서를 만들어 명분을 흐트러뜨린다면, 끝내 군신의 관계를 맺어 산성에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주상께서 한참 동안 긴 한숨을 내쉬다가 말씀하셨다. "경의 말이 옳기는 옳소." 또 말씀하셨다. "성을 나가는 일만은 하지 않을 것이오." 이식 등이 말하였다. "빼앗지 못하는 것이 뜻인데, 뜻을 빼앗긴다면 저들이 무슨 짓을 못

24) 초항(招降)은 적을 타일러서 항복하도록 한다는 뜻이다.

하겠습니까? 군신의 관계를 맺는 것은 안 됩니다." 주상께서 말씀하셨다. "경의 뜻은 알아듣겠소. 그렇다면 적이 제풀로 물러가 주기를 바라는 것이겠는데, 우리에게 믿을 것이 무엇이 있는가 말이오."

대신들이 '폐하'라는 단어를 넣을 것인지를 논의하여 답서에서 뺐다. 답서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았다. "…… 지금 바라는 바는 오직 마음을 고쳐, 옛 습속을 말끔히 씻어서, 나라를 들어 명령을 받들겠습니다. …… 오늘 성을 나오라는 명령에 있어서는 실로 어질게 감싸는 뜻이겠으나, 겹으로 에워싸여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황제의 노여움이 극도에 이르러 있고, 여기 있어도 죽고 나가도 죽을 것이니, 황제의 장막을 바라보며 죽을 것으로 각오를 굳히니 마음이 서글픕니다. …… 바라건대 황제의 덕은 하늘과 같으시니, 마음으로 가엾이 여겨 풀어주시기 바라와, 감히 실정을 털어놓고 삼가 은혜를 바라나이다."

답서를 오늘 보낼 것인지 내일 보낼 것인지를 가지고 논의한 후, 홍서봉 등 세 사람이 가지고 청나라 진영으로 갔으나, 국서를 전하지 못하고 돌아왔다. 홍서봉은 성으로 돌아오다 말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었다.

적진에 다녀온 최명길이 아뢰었다. "저들이 장수를 부른다고 기다리라더니, 김돌시가 나와서 '마대부도 없고, 날이 저물었으니 돌아가라.'하였습니다."

19일. 주상께서는 남한산성에 계셨다.

이홍주, 최명길 등이 적진으로 들어가 국서를 전달하고 돌아왔다. 최명길이 아뢰었다. "저들이 '우리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니, 무슨 낯으로 황제를 뵙는단 말인가? 다시는 오지도 말라.'라고 하더니, 신들이 몇 발짝 옮겼을 때, 다시 불러, '황제께 보고할 테니 기다리라.'라고 하였습니다." 이홍주가 아뢰었다. "저들의 말하는 모양이 몹시 바쁜 사정이 있어 보였습니다." 윤휘가 아뢰었다. "딱 잘라 국서를 받지 못하겠다고 하다가, 받아 간 것이 이상합니다."[25] 주상께서 말씀하셨다. "뇌물은 용골대와 마부대 양 장수에게만 주겠노라 말해 두는 것이 좋겠고, 성을 나가는 일만은 버티도록 하시오."

사경이나 되어서 청나라 진영에서 사람을 보내왔다. 밤이라 문을 열 수 없다고 말하여 돌려보냈다.

20일. 주상께서는 남한산성에 계셨다.

밝을 녘에 청나라 사람이 또 왔다. 이홍주 등이 받아온 답서는 다음과 같았다. "…… 그대에게 성을 나와 짐과 대면하기를 명하는 것은, 첫째로는 그대가 진심으로 기뻐하며 복종하는지를 보려함이며, 둘째로는 그대에게 은혜를 베풀어 나라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줌으로써 천하에 인자함과 신의를 보이려함이다. …… 맹서를 어기도록 앞장서서 모의한 그대의 신하에 대해 짐이 처음에는 모두 죽인 뒤에야 그만 두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지금 그대가 정말로 성에서 나와 귀순하려거든 먼저 앞장서서 모의한 신하 2, 3명을 묶어 보내도록 하라. 짐이 효시하여 후대의 사람들이 경계하도록 하겠다."

주상께서 말씀하셨다. "저들 말을 보니, 문서를 주고받는 것만으로는 안 될 것 같소." 최명길이 아뢰었다. "'군사만 물려주신다면 성 위에 단을 쌓아 절하며 전송하겠다.'라고 하면 어떨는지요?" 윤휘가 아뢰었다. "오직 피로써 싸울 일이지 공연히 문서나 보내는 일은 아무런 도

25) 청나라가 조선을 멸망시키거나, 직접 통제하지 않고, 항복을 받고 돌아간 이유에 대하여, 당시 청나라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설과, 조선에 발병한 천연두로 인하여 청나라 군사들이 죽어나가는 비전투손실이 컸기 때문이라는 설이 있다.

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사헌 김수현 등은 '신(臣)'이라는 글자를 뺄 것을 끊임없이 주청하였다. 아무리 급박하여도 명분이 중요하다는 말이었다. 김류가 아뢰었다. "명분이 중요하다고 해도, 끝내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면 지금 '신'이라 하여도 안 될 것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적들의 노여움만 돋우어 영원히 문서 왕래의 길이 끊긴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김수현이 말하였다. "오직 망극함을 이기지 못하여 올린 말씀입니다."

21일. 주상께서는 남한산성에 계셨다.

큰 눈이 와서 한 자 남짓 쌓였다.

우상 이홍주와 판서 최명길이 국서를 가지고 청나라 진영으로 갔다. 답서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 신이 하늘에 죄를 지어, 외로운 성에 갇혀 앉아, 스스로 생각해도 곧 망하게 되었습니다. …… 다만 신에게 안타깝고 절박한 사정이 있기에 폐하에게 호소하려 합니다. 동방의 풍속은 대국과 같지 못하여 예절이 너무하리만큼 꼼꼼합니다. …… 오늘날에 이르러 온 성의 백관과 백성들이 위태롭고 급박한 사세를 목도하고, 귀순하자는 의논에 대해서는 똑같은 말로 동의하고 있습니다만, 오직 성에서 나가는 한 조목에 대해서만은 모두들 고려조 이래로 없었던 일이라고 하면서 죽는 것으로 스스로 결정하고 나가지 않으려 합니다. 따라서 만약 대국이 독촉하기를 그만두지 않으면 뒷날 얻는 것은 쌓인 시체와 텅 빈 성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 어찌 꼭 신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린 뒤에야 바야흐로 이 성을 이겼다고 말하겠습니까. …… 화친을 배척한 여러 신하들의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지난해 가을 무렵에 이미 근거 없는 논의로 일을 그르친 자를 적발하여 모두 배척해서 내쫓았습니다. …… 지금 황제의 명을 받들었으니 어찌 감히 어기겠습니까마는, 지금 이 무리들의 본마음을 생각해 보면, 식견이 좁고 어두워 천명이 있는 곳을 모르고 마음속으로 옛날의 습관만 융통성 없이 지키려고 하다가 그렇게 된 데 불과합니다. 이제 폐하께서 바야흐로 군신의 대의로 한 세대를 감화시킨다면, 이와 같은 무리도 당연히 불쌍히 여겨 용서해 주시는 가운데에 포함시켜야 될 듯합니다. …… 삼가 죽음을 무릅쓰고 아룁니다."

이홍주 등이 돌아와서, 저들이 이번에는 순순히 국서를 받아 갔다고 보고하였다.

저녁이 되어서 저들이 사람을 보내왔다. 이홍주가 나가서 만나고 돌아와서 아뢰었다. "우리 국서의 내용이 저들 황제의 요구 사항과 다르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주상께서 말씀하셨다. "얼마동안 놔두고 하는 양을 더 보는 것이 좋겠소."

22일. 주상께서는 남한산성에 계셨다.

이명주가 아뢰었다. "동궁의 분부가 있었으나, 차마 입 밖으로 내 놓을 수 없습니다." 주상께서 말씀하셨다. "세자도 그렇지. 내게 얘기도 않고 무슨 말을 하더란 말인가? 철이 없구나." 세자의 분부는 자신이 성을 나가겠다는 것이었다.

이명주가 다시 자신을 묶어 적진에 보낼 것과, 주상께서 북문 밖으로 나가 강물을 이용하여 강도로 들어갈 것을 주청하였다. 주상께서 말씀하셨다. "그대의 뜻을 안다. 그러나 이 일은 이루기 어려울 것이다."

이홍주 등의, 강물을 이용하여 강도로 들어갈 것을 청하는 주장이 이어졌다. 주상께서 말씀하셨다. "다시 더 생각해 보겠소."

오달제와 윤집

23일. 주상께서는 남한산성에 계셨다.

날씨는 조금 따뜻해졌으나, 눈은 여전히 녹지 않았다. 개원사의 행랑 한 채와 광주 옥사를 뜯어 밥을 짓고 불을 때는 데에 공급하도록 하였다.

주상께서 성에 들어온 때부터 40일이 지났음에도 헛소문만 들릴 뿐 구원하러 오는 자가 없었다.

김수현 등이 결사 항전하겠다는 글을 용골대와 마부대에게 보내겠다고 주청하였다. 주상께서 말씀하셨다. “전에도 이러한 말을 한 이가 있었는데, 저들의 노여움만 돋워 주었을 뿐이오.”

군사들을 위하여 세금 등 국가적 부담을 면제 하고, 천민의 신분을 벗어나게 하는 등의 일을 논의하였다.

체부에서 무과를 열 것을 주청하였고, 주상께서 허락하셨다.

김류가 청나라의 요구 사항 중 하나를 들어주는 내용의 답을 보낼 것을 주청하면서 아뢰었다. “척화하는 일은 비록 정의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나라 일을 그르친 것입니다. 듣자하니 홍익한이 가장 앞장섰다고 하니, 그 이름을 답서에 넣되, 우리 스스로 처치하겠노라 적으면 어떨지요?” 논의 끝에, 최명길이 “홍익한이 척화를 주창했으나, 지금은 평양 서윤으로 임지에 있으며, 나머지 사람들은 그를 따라 척화를 논한 자일뿐입니다.”라는 내용의 국서를 작성하였다.

세자께서 체부에 말하였다. “나는 이미 자식이 있고 또한 여러 아우가 있다. 비록 죽더라도 무슨 한이 있겠는가? 후사가 없더라도 마땅히 종묘와 사직을 위하여 성을 나가겠다.” 장수와 군사들이 이를 듣고, “척화를 주장한 불충한 신하들이 나라를 그르쳤는데, 어찌 결박하여 빨리 보내지 않는가?”라고 하였다. 체부에서 “세자께서 이리 명을 내리시니 화친을 배척한 신하를 내어주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고 척화자들을 자수시켰다. 이에 김상헌, 이명웅 등이 자수하였다. 정온은 “신은 애초 척화자가 아니었습니다. 성에 들어온 이후에 비로소 화의를 그르다 하였으나, 척화의 죄를 면하기 어렵습니다.”라고 하였다. 정온을 아는 어떤 이가 “생사가 진실로 큰 것이로구나.”라고 말하였다.

윤문거의 상소가 올라왔다. 자신의 아버지 윤황이 척화신으로 자처하여 적진으로 가겠다고 하지만, 눈도 보이지 않고, 운신도 못하여 자신이 대신 적진으로 가겠다는 내용이었다. 주상께서 말씀하셨다. “그럴 뜻이 없으니, 두려워 말라.”

여러 대관이 척화를 주장한 자 열 명의 이름을 늘어놓고, 그 아래 점을 찍어 오달제와 윤집을 뽑았다.

삼경에 청나라 군사가 서쪽 암문 밖에서 사다리와 방패 및 여러 기구를 가지고 에워싸고 올라왔다. 성 안의 사람들이 군사를 모으는 소리를 듣고 앞 다투어 모두 성가퀴에 올랐다. 이시백이 장병들에게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 것을 독려하였다. 끝내 청나라 군사들이 모두 패하여 퇴각하였다.

사대부 중에는 작은 칼을 밤에도 소지하는 자가 있었다. 일이 급박하면 행궁으로 내달리어 주상과 함께 죽으려는 뜻이었다.

24일. 주상께서는 남한산성에 계셨다.

주상께서 몸이 편안치 않으신데 약을 드시지 않았다. 김류 등이 약을 올렸다.

망월대 위에서 청나라 군사들이 하루 종일 홍이포[26]를 쏘아댔다. 모두들 두려워 간담이 서

늘해졌다.

청나라 사람이 서문에서 “그저께 무슨 일로 나왔었는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다시 나와도 좋다.”라고 외쳤다. 이에 김신국, 최명길, 윤휘 등이 국서를 가지고 저들에게 갔다. 김신국 등이 떠나자마자, 대간들이 화친을 배척한 신하를 보내지 말 것을 청하였다. 이에 이미 떠난 김신국 등을 불러 돌아오게 하고, 국서를 고쳐서 나가게 하였다. 김신국 등을 만난 용골대와 마부대가 “너희가 우리의 말을 따르지 않는 것이 한스럽다.”라고 하고 국서를 받아서 돌아갔다.

사신들이 역시 빈손으로 돌아오자 실망한 장수와 군사들이 나가서 싸울 것을 청하였다. 주상께서 조정의 명령을 기다릴 것을 권하셨다.

25일. 주상께서는 남한산성에 계셨다.

조정에서 도원수 김자점 등에게 교지를 내려, 구원병을 보내지 않았음을 질타하였다. 성 안의 사람들이 김자점에 대하여 이를 갈지 않은 이가 없었다.

청나라 군사가 연일 대포를 쏘아 동남쪽의 성가퀴가 거의 다 허물어졌다. 청나라 군사가 쏜 대포가 대장기의 깃대를 명중시켜 꺾였다. 형세는 이미 힘쓰기 어려웠다. 군량도 이미 떨어져서, 사람들이 서로 잡아먹지 않고서야 나라를 보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26일. 주상께서는 남한산성에 계셨다.

무사들이 궐 아래에 모여 척화신을 결박하여 보낼 것을 청하였다.

김수현 등은 전혀 다른 주장을 폈다. “성도 아직 허물어지지 않았고, 군사들의 사기도 굳습니다.” 주상께서 말씀하셨다. “어쩌면 그리 엉뚱한 소리를 한다는 말이오. 성가퀴가 다 무너졌으니, 사다리를 타고 올라온다면 어찌하겠소.”

홍서봉·최명길·김신국이 청나라 진영에 가서 세자가 나온다는 뜻을 알렸으나 저들은 국왕이 직접 나오지 않는 한 결단코 받아줄 수 없다고 하였다. 용골대와 마부대가 나와서 “강화도의 빈궁과 두 대군과 부인들을 잡고 있다.”라면서 대군이 직접 쓴 글과, 동부승지 한흥일의 글을 보여주고, 종실 진원군과 환관 나업을 보여 주었다. 홍서봉이 돌아와 주상께 아뢸 때, 주상께서는 글을 보자마자 놀라고 참혹하여 통곡하였다. 강도가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성 안의 사람들이 통곡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마침내 나가서 항복하자고 결정하고, 국서를 다시 작성하기로 하였다. 김상헌은 음식을 먹지 않은지 오래되었는데, 이 때 항복한다는 결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스스로 자신의 목을 찔렀으나 죽지 않았다. 정온은 칼로 옆구리를 찔렀으나 죽지 않았다.

항복

27일. 주상께서는 남한산성에 계셨다.

나만갑, 이명웅 등이 주상께서 성을 나가서 항복을 하더라도 세자는 성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주청하였다. 주상께서 대신들과 의논하겠다고 하셨다.

이홍주, 김신국, 최명길이 국서를 들고 청나라 진영으로 갔다. 국서는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다. “…… 조서를 내려주심에 황천이 내려다보는 듯하여 두려운 마음을 품은 채 여러

26) 홍이포(紅夷砲)는 명나라 때 네덜란드의 대포를 모방하여 만든 중국식 대포이다.

날 머뭇거리느라 앉아서 회피하고 게을리 하는 죄만 쌓게 되었습니다. …… 신이 바야흐로 3백 년 동안 지켜온 종묘사직과 이 나라의 살아있는 생명들을 폐하에게 우러러 의탁하게 되었으니 정리 상 실로 애처로운 점이 있습니다. 만약 혹시라도 일이 어긋난다면 차라리 칼로 자결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삼가 원하건대 성스럽고 자애로운 황제께서는 진심에서 나오는 정성을 굽어 살피시어 명령을 분명하게 내려 신이 안심하고 귀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소서."

이홍주 등이 돌아와 아뢰었다. "저들 말이 '처음부터 이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이제부터 양국은 무사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황제에게 보고하여 날짜를 정할 터이니, 기다리라.'라고 하였습니다."

아아! 피아의 힘을 헤아리지 않고 청나라와의 관계를 끊었고, 준비도 없이 변란이 일어나, 쇠잔한 성에 포위되어 식량은 부족하고 구원병도 끊어졌다. 애통한 것은 강도가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항복하기로 한 것이다. 가도[27] 공격을 돕는다는 것은 잘못된 결정 중에서도 가장 심한 것이다. 우리 조선으로 하여금 군신간의 도리를 잊고 명나라를 공격하는 일을 돕게 하면서, 청나라가 우리에게 신하가 되어 섬기라 할 수 있겠는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차마 공격을 돕지 못하겠다고 했다면 저들도 일단의 감동을 없었겠는가? 조정의 신하들이 이러한 이치를 알지 못하고 화친을 그르칠까 두려워 한 마디 간쟁도 하지 못하였으니, 애석하다.

28일. 주상께서는 남한산성에 계셨다.

주상께서 온빈, 왕자, 옹주 등의 처소에 간장, 소금 등을 보내주라 하셨다.

사신들이 한(汗)의 글을 가지고 왔다. 칙서를 받드는 의식을 끝내고, 용골대가 웃으며 "삼전도에 항복을 위한 단을 설치하였다. 내일 항복의 예를 행할 것이다. 스스로 손을 뒤로 묶고 관을 짊어지는 절차는 뺄 것이다."라고 하였다. 홍서봉이 곤룡포와 면류관을 입어도 되는지를 묻자, 용골대는 "안 된다. 남색이 합당할 듯하다."라고 하였다. 홍서봉이 다시 남문으로 나와도 되는지를 묻자 용골대는 "서문으로 나오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라고 대답하였다. 또, "항복의 예를 치른 후, 조선을 다시 봉할 것이며, 우리는 회군할 것이다. 돌아갈 때, 가도를 기습하려 하니 수군과 포수를 징발해서 우리를 도와야 한다. 왕세자와 대군을 심양에 인질로 들여보내고, 삼공과 육경의 자제도 인질로 들여보내야 할 것이다. 때에 맞추어 부모를 뵙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면 번갈아 왕래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후로 우리들은 귀국의 관리들과 잇달아 혼인 관계를 맺어서 친하게 지내려 한다."라고 하였다. 사신이 돌아와 칙서를 뜯어보니, 대체로 용골대의 말과 같았다. 글에는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이 더 있었다. "…… 짐이 식언할까 의심하는 것인가? …… 지금 지난날의 죄를 모두 용서하고 규례를 상세하게 정하여 군신이 대대로 지킬 신의로 삼는 바이다. 그대가 만약 잘못을 뉘우치고 스스로 새롭게 하여 은덕을 잊지 않고 자신을 맡기고 귀순하여 자손의 장구한 계책을 삼으려 한다면, 앞으로 명나라가 준 고명과 책인[28]을 헌납하고, 그들과의 수호 관계를 끊고, 그들의 연호를 버리고, 일체의 공문서에 우리의 정삭[29]을 받들도록 하라. …… 만일 그대에게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하면 짐이 인질로 삼은 아들을 세워 왕위를 계승하게 할 것이다. …… 그대는

27) 가도(椵島)는 평안북도 철산군의 섬으로, 명나라가 도독부를 설치하여 모문룡이 주둔해 있었다.

28) 고명(誥命)·책인(冊印)은 중국에서 제후국에 그 왕의 즉위를 승인하여 책봉한다는 문서와 이를 증명하는 금인을 내려 주던 일이다.

29) 정삭(正朔)은 중국에서 제왕이 새로 나라를 세우면서 고친 역법을 말한다. 세수(歲首)를 고쳐 신력(新曆)을 천하에 반포하여 실시하였다.

이미 죽은 목숨이었는데 짐이 다시 살아나게 하였으며, 거의 망해가는 그대의 종묘와 사직을 온전하게 하고, 이미 잃었던 그대의 처자를 완전하게 해주었다. 그대는 마땅히 국가를 다시 일으켜 준 은혜를 생각하라. 뒷날 자자손손토록 신의를 어기지 않도록 한다면 그대 나라가 영원히 안정될 것이다. 짐은 그대 나라가 되풀이해서 교활하게 속였기 때문에 이렇게 조칙으로 보이는 바이다."

윤집과 오달제를 호송하여 나가려고 하자, 주상께서 말씀하셨다. "부덕한 임금을 섬겨서 오늘의 화를 당하였으니 너희를 볼 면목이 없다." 두 신하는 각각 늙은 어머니가 있었으며, 윤집은 어린 자식 셋이 있었고, 오달제의 처는 이제 막 임신을 한 상황이었다. 두 사람이 벗들과 이별할 때, 웃으며 "죽은 이를 조문한다는 말은 들었어도 산 사람을 조문한다는 소리는 듣지 못했다. 임금을 잘 모시고 도성에 돌아가기를 바란다."라고 하여, 눈물을 떨구지 않는 이가 없었다.

29일. 주상께서는 남한산성에 계셨다.

밝을 녘에 김류, 이홍주, 최명길이 들어오니, 주상께서 명하여, 방 안에 들어가 몰래 이야기하였고, 승지와 사관은 밖에 있어서 기록하지 못했다.

판서 최명길과 무관 이영달 등이 오달제와 윤집을 결박하여 청나라 진영에 이르자, 황제가 "너희들은 무슨 소견이 있어, 오늘이 이르게 하였는가?"라고 물었다. 두 사람은 "우리 두 신하는 애초에 화친을 배척한 사람들이 아니다. 간관을 맡고 있어서 다만 다시 사신을 통해서는 안 된다는 한 가지 일을 말했을 뿐이다."라고 하였다. 다시 최명길과 이영달에게 "국왕이 성을 나올 때, 신하는 5백 명을 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고, 각각 담비의 모피로 만든 갖옷 한 벌씩을 주었다. 사신이 돌아오자 장수와 군졸들이 기뻐하였고, 벼슬하는 사람 중에도 기쁜 기색을 띠는 사람이 있었다. 참담하여 흐느끼지 않는 자가 없었다. 이성구를 우상으로 삼았는데, 세자를 따라 심양으로 가도록 함이었다.

30일. 주상께서는 남한산성에 계셨다.

성을 나갈 때, 주상을 호위할 장수와 사졸을 5백 명으로 정하였다.

주상과 세자가 남색 비단 무관이 입던 공복을 입고 서문으로 나갔다. 햇빛은 을씨년스럽고, 안개가 가득하였다. 어가의 행렬을 보고 목이 메어, 눈물을 삼키지 않는 이가 없었다.

산과 언덕 곳곳에 청나라 군사가 벌떼처럼 모여 있었는데 모습이 괴이하였다. 짐승의 털로 만든 장막, 소, 말, 낙타, 약탈하여 얻은 짐들이 들에 가득하였다. 조선의 남녀로 사로잡힌 자는 수를 헤아릴 수 없었다.

주상의 수레가 송파에 이르자, 저들이 3만의 기병으로 방진을 쳤다. 진영 안에 단을 쌓고 단위에 비단 자리를 펼치고 황제의 의자를 올려놓았다. 청나라 황제가 그 위에 앉아서 주상께 명하여 세자 및 대신과 육경을 거느리고 한 번 절할 때마다 이마를 땅바닥에 세 번 부딪히기를 세 번 반복하는 예[30]를 행하고 단에 이르게 하였다. 그리고 주상을 끌어 단으로 올라오게 하고, 대신과 육경 및 관리들을 불러서 단 아래에 앉히고 음식을 대접하고, 빈궁과 두 대군 및 대군의 부인을 나오게 하여 보여주었다.

주상께서 사대부의 가속을 돌려보내기를 청하니 허락하였다. 천민과 종들 중에 자신들을 뒤로 한다며 원망하는 자가 있었다. 청나라 황제가 주상에게 옥책과 고명을 바치도록 하였다.

30) 삼배구고두(三拜九叩頭)라고 한다. 한 번 절할 때마다 이마를 땅바닥에 세 번 부딪히기를 세 번 반복하는 예법이다.

아아! 선조가 임진왜란 때, “사대부를 굶어 죽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는데, 이는 사대부를 일반 백성보다 중하게 여긴 것이다. 우리 주상은 백성을 먼저 위하였는데, 백성들의 마음에는 원망만 일어났다. 바라는 바를 어찌 다 충족할 수 있었겠는가?

청나라 황제는 세자와 봉림대군을 진중에 머물게 하고, 빈궁 및 인평대군과 두 부인을 보내주었다가, 갑자기 빈궁과 봉림대군의 부인을 돌아오게 하였다. 세자와 대군을 심양으로 데려가기 위함이었다.

도성으로 돌아가는 주상의 수레가 뚝섬에 이르자 청나라 사람들이 사람과 가축과 재물을 몰아 나오는 것이 보였다.

해가 저물어서 주상의 수레는 동대문으로 들어갔다. 종루 좌우 행랑을 살폈는데 보이는 것마다 타고 흔적이 없었다. 놀란 개들만이 무리지어 짖어댔다.

저녁에 주상은 창덕궁으로 돌아왔고, 백관들은 대궐 안에 머물렀다.

주상께서는 창덕궁에 계셨다.

정축년 봄, 2월 1일, 주상께서는 창덕궁에 계셨다.

삼각산에 숨은 백성들이 점차 내려왔고, 포로로 잡혔다가 도망친 자도 와서 모여들었다. 집집마다 성곽 안이나 밖이나 죽은 시체만 이리 저리 늘어져 있었다. 떼 지어 모인 개들이 다투어 시체를 뜯어 먹고 까마귀와 솔개가 다투어 쪼아 먹고 있었다. 어떤 이는 노략질을 당했고, 어떤 이는 해를 입어, 원망하며 몹시 슬퍼하였다. 어떤 이는 생사를 알지 못하여 눈물을 흘렸으며, 안절부절 못하고 곡하는 소리가 하늘을 찌르니, 처참하고 마음 아프지 않은 것이 없었다.

2일. 주상께서 남한산성의 백관들을 도성으로 돌아오도록 하였다.

청나라 황제가 심양으로 출발하였고, 주상께서 동대문 밖에 나가 공손히 전송하였다.

3일. 용골대와 마부대가 도성에 들어와 주상을 알현하였다. 저들이 봉해 놓았던 선혜청을 열어, 호종했던 신하와 백성들이 그 식량에 의지하였다.

청나라 군사들이 떠날 때에 몽고군이 마전포와 도성의 3문 밖에 가득하였고, 혹은 용산과 서강에서 탄환과 배를 주조하고 있었다. 가도를 공격하려는 것이었다.

4일. 주상께서 마음껏 술을 마실 생각이었으나 몸이 편치 못하여 그리하지 못하셨다. 몽고군들은 소나 말에 실어 나르는 짐을 약탈했으며, 도성의 안팎을 막아 포위당한 것과 다르지 않았다.

5일. 세자가 도성에 들어와 주상을 뵈었는데, 겨우 12일간 머물고 청나라 진영으로 떠났다.

종묘와 사직의 신판(神版)이 강화도로부터 돌아와 도성 안에 안치되었다. 강화도가 함락 당했을 때, 대신 윤방이 뜰을 파고 위판을 묻었다. 청나라 군사들이 강화에 들어와 구덩이를 팠으나 보화가 없자 위판을 함부로 집어 던졌다. 후에 수습하여 안치할 때에 인순왕후의 신주를

분실하였다. 윤방을 파직시켜 방면했다가, 귀양 보냈다.

6일, 주상께서 성을 나가 청나라 왕자 도르곤을 만나고 날이 저물녘에 도성으로 돌아왔다.
이 뒤로는 긴요하고 중요한 내용이 없어 상세히 기록하지 않는다.

에필로그

청나라는 조선을 멸망시키지 않았다.

주상을 구원하지 않고 외곽에 머물렀던 도원수 김자점 등은 대간들의 탄핵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다. 김경징 등이 강도를 지켜내지 못한 죄로 자결하는 벌을 받았을 뿐이었다. 오히려 말단 장수들은 형벌을 받고 죽었다.

호종했던 문무관 중 4품 이상은 모두 품계를 올려 주었다. 4품 아래로는 전직하였다. 호종했던 군사들은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서 친속을 만나게 했으며, 과거를 베풀고, 10년간 세금과 부역을 면제 받았다. 8월에 과거에서 급제한 자가 7천명이었다.

청나라 사람들은 오달제와 윤집을 잡아 가는 길에 평양에서 홍익한까지 붙잡아 심양으로 돌아갔다. 이들 세 사람은 심양에서 처형당하였다.

정명수는 평남 순천의 관노였으며, 김석시는 평북 위원의 지방 군사였다. 그들은 청나라에 등용된 이후, 용골대와 마부대를 따라 조선에 들어왔다. 그들이 우리 조선인을 협박하고, 멸시하고, 욕보이는 것은 청나라 사람들 보다 심했다.